

# 전설의 시작: 슈퍼섬유, 슈퍼멘탈이 되다

코오롱인더스트리 김철호 대리의 One & Only 도전기

콰광!

파지직!





뜨거운 아이스  
아메리카노?!



Mr. Kim,  
Mr. Kim, 신형 방탄복  
무게를 10% 줄여야 합니다.  
기존 헤라크론(Heracron) 원사의  
강도는 유지하되 굵기는 미세하게  
미세하게 줄여주시오.

기한은 2주.



이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었다.  
업계의 상식을 파괴하는, 불가능을 향한 도전장이었다!



반장님, 저 철호입니다.  
혹시 3호기 라인 세팅을  
아주 조금만..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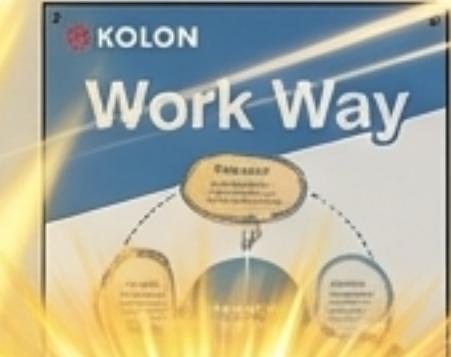
안 돼, 못 해!



김 대리, 밥 먹다 체하는 소리 하지 마소!  
지금 물량 맞추기도 숨넘어가는데  
라인 세팅을 바꾸면 그 로스(Loss)는  
누가 책임질 거야?

포기하면 나는 그냥  
납기 맞추는 직원일 뿐이야...  
하지만 해내면,  
'솔루션을 제공하는 파트너'가 된다!  
전화로는 안 돼. 직접 가야 해!

‘경계를 넘어 협력한다’





‘중요한 퀘스트 아이템: 빵 박스’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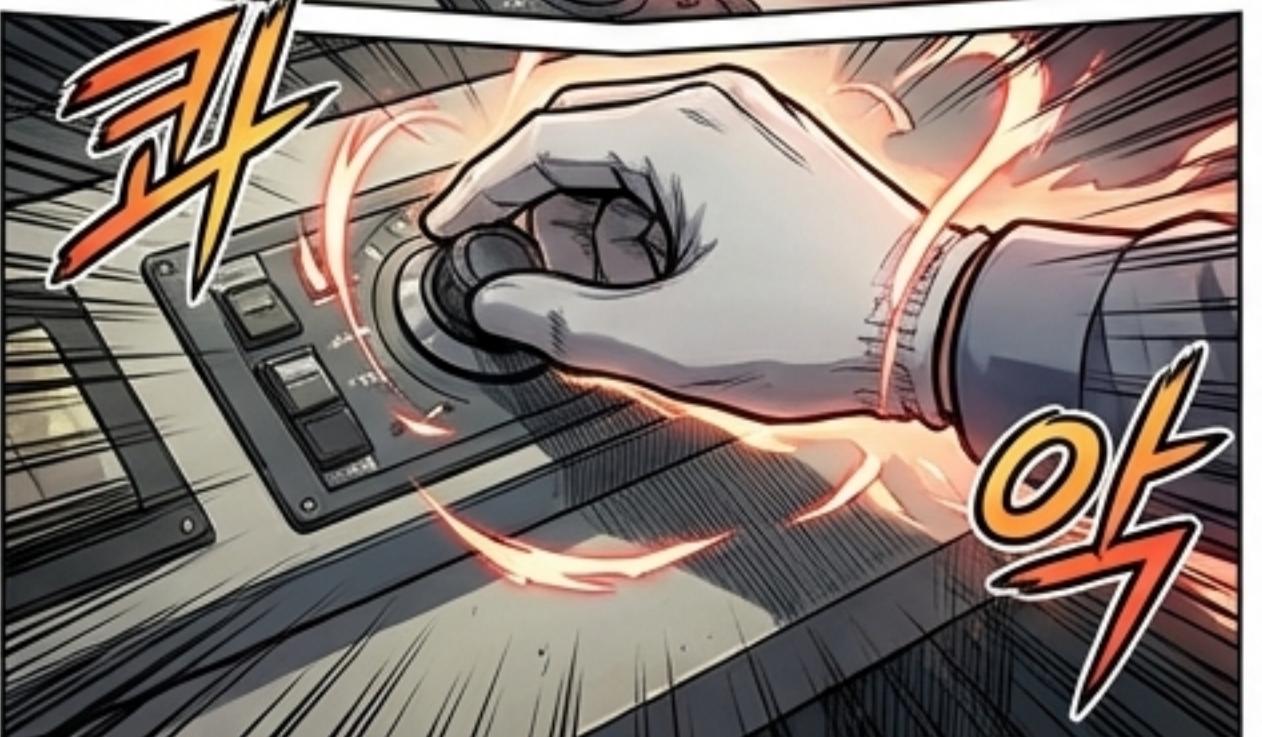
“이게 성공하면 우리 공장 기술력이 세계 표준이 됩니다. 경쟁사들은 시도조차 못 하는 기술이에요. 반장님 기술 아니면 이거 구현할 사람 대한민국에 없어서 제가 내려온 겁니다!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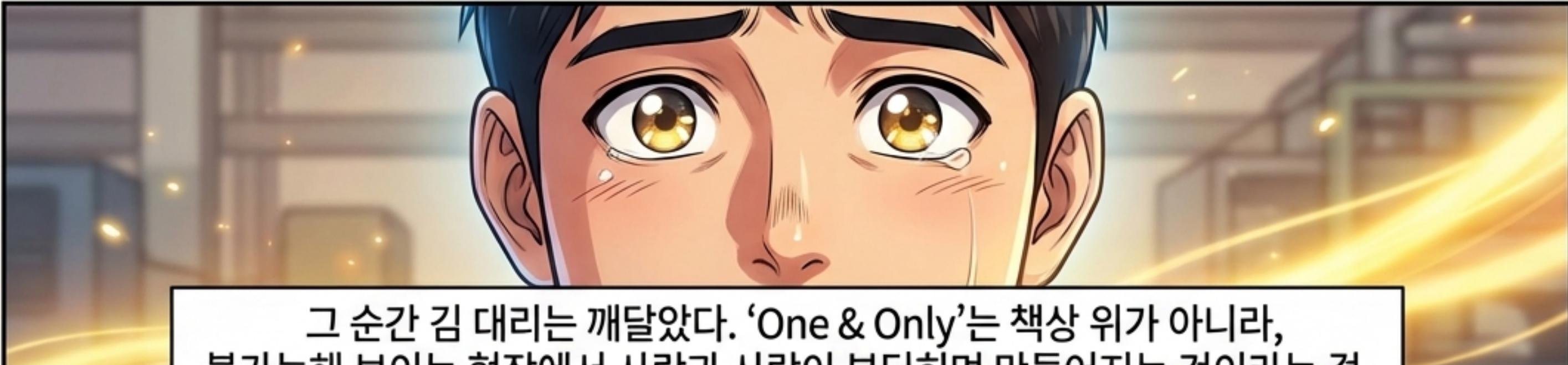




마지막 시험 가동의 순간.  
모두가 숨을 죽였다.







그 순간 김 대리는 깨달았다. ‘One & Only’는 책상 위가 아니라,  
불가능해 보이는 현장에서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며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.

KOLON

# Fantastic!



LONG-TERM  
CONTRACT

SAFE GUARD & KOLON



SafeGuard



축하합니다!



KOLON

PERSON

환호!

환호!



그 순간, 김 대리는 회사의 진정한 전사가 되었다.  
모두의 인정과 박수 속에서 그는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.

야, 김 대리.  
너 그때 시말서 쓸 각오  
진짜였냐?

사실  
시말서 양식  
다운로드  
받아놨었지.

근데 도전 안 하면  
실패도 없지만, 성공도 없잖아?  
이게 바로 우리 코오롱 스타일이지.

도전  
(Challenger)

협력  
(Collaboration)

One & Only

